

제 145호 강의 마무리하기 2

2. 강의 내용을 단기 목표에 비추어 정돈(복습)한다.

학기말은 어수선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주의력을 모으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새시대 교수법 11~14호). 복습을 하실 경우 "지금부터 복습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학기말 시험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일단 학생들의 귀가 쫄긋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학생들마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긴장하고 무언가 적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도록 훈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기말 시험'이라는 말 한마디로 주의력을 교수님 앞으로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력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강의 내용을 복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강의 내용을 장기 목표에 비추어 정돈한다.

한 학기 내내 공부한 강의 내용이 마치 학기말에 시험보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단기 목표와 함께 장기 목표를 상기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 목표는 강의 내용과 다른 과목과의 연관성, 졸업 후의 쓸모, 자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이 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보이기 쉬운 장기 목표에 대한 지적인 구체적인 단기 목표 사이사이에 끼어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 목표를 한꺼번에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혼계(잔소리)로 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4. 작별 인사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졸업반 학생들을 가르친 경우에는 마지막 날 인사를 나눌 때가 힘이 듭니다. 인사말을 하지 않고 끝나자니 뭔가 멍멍하게 느껴지고... 그러나 학생들은 멍하게 앉아 있거나 어서 빨리 종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감격해서 글썽이거나 목이 메이면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인사는 한 학기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학생들이 가장 오래 간직할 교수님의 모습과 메시지를 건네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사말이 단 1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됩니다. 단 걸치레가 아니고 교수님의 솔직한 마음이 묻어있는 말이어야 하겠지요. 물론 인사말을 상황과 분위기에 맞춰 즉흥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 "오늘 이 강의가 내 생의 마지막 강의라면...?"

<잔소리 코너>

인사말을 하신 후에 뭔가 아쉬워서 끝을 내지 못하고 또 다른 말씀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효과 나기 일쑤입니다. 뭔가 아쉬운 기분 그대로 간직하고 끝나면 오히려 좋은 여운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